

李朝 印刷文化와 日本

田 川 孝 三*

I.

李朝의 印刷文化는 王朝 500년의 긴 歲月을 통하여 진실로 눈부신 바가 있다. 물론 盛衰起伏을 면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특히 鑄字는 오래도록 活用되어 文運에 한층의 빛[光輝]을 더한 것은 가장 뛰어난 特色이었다.

印刷는 木版을 가지고 文書·佛像을 複製하는 手段으로서 中國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러나 現存하는 最古의 木版印刷는 新羅 景德王 10年(751) 佛國寺 釋迦塔에 감아진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있고 또 金屬活字 使用이 이미 高麗中期인 1,300年代 前半이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文化的 特色이라 하겠다. 恭讓王 4年(1392) 正月의 書籍院設置는 活字의 鑄造 印刷를 政府事業으로서 組織化한 것이었다.

朝鮮政府도 이를 繼受하여 太宗3年(1403) 2月 鑄字所라 改稱하고 最初의 銅活字인 癸未字를 鑄造하였다. 印刷法에는 鑄字以外 木版·木活字 등도 많이 使用되어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印刷文化를 꽃피게 한 것은 원래 學問 文藝의 興隆에 있었다. 여기서는 먼저 그 特色的인 文治政策을 集約적으로 概觀하고 다음 그 印刷文化를 考究하며 끝으로 日本에 미친 影響을 보려 한다.

II.

朝鮮의 文運興隆을 지탱한 것은 歷代에 걸친 文治主義의 양성한 理念과 意欲이었다. 그 文敎를 一貫한 것은 朱子學이었으나 文化昂揚을 위하여는 儒學 외에도 넓은 分野에 걸쳐 그 講學이 獎勵되고 書籍의 蒐集 出版이 행하여졌다. 太宗 3年の 鑄字所 設置는 癸未字의 鑄造와 書籍의 廣布를 원해서였다. 특히 藝文館大提學 李穡·總制 閔無疾·知申事 朴錫命·右代言 李膺의 4名을 提調로 任命한 것에서도 그 意欲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窺知할 수 있다. 더우기 世宗2年에 이루어진 庚子字의 卞季良 鑄字跋은 당시의 文治에 대한 旺盛한 自負와 氣慨가 숨겨져 있다. 즉

因是而無書不印 無人不學 文敎之興 當日進而世道之隆 當益盛矣 視彼漢唐人君 規規於財利兵革 以爲國家之先務者 不啻霄壤矣 實我朝萬世無窮之福也(世宗實錄 4年 10月 癸丑)

라고 하였다. 이는 그 文治主義에 큰 자랑을 가지고 이를 謳歌한 것이다.

* 日本國 東洋文庫

開國後の 數年동안은 王權을 둘러싸고 悲慘한 血肉間의 다툼을 면하지 못했으나 太宗이 즉위함에 이르러 王權의 確立, 明國의 冊封도 實現되어 새로운 國家의 기틀이 안착으로 安定되었다. 政治機構도一新되었으며 獨自의인 官制를 整備하고 前朝의 佛教偏重의 餘弊를 一掃하는 동시에 新興의 朱子學을 文教의 基礎로 하여 朝儀 祭祀 기타 萬般의 여러 制度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國家建設의 抱負는 이들 여러 制度에도 나타나 太宗朝를 포함하여 약 半世紀동안 民族精神은 가장 높이 昂揚되었다. 世宗의 創作으로 이루어진 國字의 制定廣布는 그 端的인 象徵이며 또 鄉曆 天文儀器의 作製에는 물론 나아가 世祖의 圓丘壇祭祀에도 이를 엿볼 수가 있다. 이 사이에 形成된 文治主義의 理念이 凝結되어 이후 傳統的으로 歷代의 繼受한 바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 實錄을 살필 필요도 없이 經國大典을 비롯 여러 法典을 들추어보면 學校 科擧의 상세한 制度 이외의 文武官僚를 비롯한 諸學의 講學勸獎策의 制度가 注目될 것이다. 그것들은 太宗朝의 策定을 중심으로 서로 이어서 修正追加되어 온 것이다. 특히 太宗 7年(1407) 3月 權近의 勸學事目(太宗實錄 7年 3月 戊寅)이 根幹이 되었다. 文臣은 時·散을 막론하고 經學·文學의 讀書·製述을 행하여 높은 文化的 教養을 몸에 지니는 것이 要求되었다. 특히 文臣의 年少新進에는 講學을 위한 周到한 方策이 세워졌다. 文臣의 春秋詩賦 抄啓年少文臣의 經書分授講讀, 혹은 抄啓文臣의 月課 制度 등과 같은 것이다. 이 이외의 儒臣들에는 雜學이라 일컬어졌으나 醫學·律學 등의 諸學도 같은 것이었다. 太祖 2年(1393) 兵學·律學·字學·譯學·醫學·算學이 세워졌으나 太宗 6年(1406) 다시 儒學·吏學·陰陽風水·樂學을 더하여 十學으로 했다. 十學의 沿革은 高麗 恭讓王 元年(1389)에 시작된다. 高麗史 諸司都監色條에 보면 이해에 十學敎授官을 두고 禮樂을 成均館, 樂學을 典儀寺, 兵學을 軍候所(즉 中軍軍候所), 律學을 典法寺, 字學을 典校寺, 醫學을 典醫寺, 風水陰陽學을 書雲觀, 吏學을 司譯院에 分隸시켰다 하고 있다. 여기에는 八學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條의 다음에 王 3年「漢語都監을 漢文으로 하고 敎授官을 둔다」고 한 漢文과 다시 算學을 더하여 十學으로 한 것일 것이다. 武·律·書·算學은 본시 國子學에 속했으나 元 服屬 중 내외의 混亂으로 衰微되었던 것을 整理하여 이 措置를 보게 된 것일 것이다. 朝鮮의 十學은 禮學을 제외하고 漢文學을 譯學으로 하고 다시 儒學을 더한 것이 注目된다.

十學은 각각 獨自의인 學習規定과 勸獎策이 세워졌다. 律學은 律學院, 算學은 算學廳, 醫學은 三司의 醫生房과 같이 學舍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校書館의 字學, 訓練觀의 武學 등 각각 本司에 속한 것도 있다. 어느 것이나 二品以上の 文臣 提調官을 두고 提學·別坐를 더하였으며 敎授·訓導官이 이들의 敎育에 당했다. 그 子弟는 年少文臣·士族子弟·吏典去官者·良民 등 各學에 따라 같지 않고 官職이 있는 자는 學官, 無職은 生徒라 일컬었다. 더우기 注目할 것은 後進의 敎育에만 그치지 않고 本學을 業務로 하는各司의 中堅官員 및 曾任散官까지 아울러 學習시키는 것도 目的으로 하였다. 그 勸勵策으로서 十學은 모두 正月·4月·7月·10月の 年 4回 禮

曹에 모아 考試하고 成績을 計하여 年末의 遷轉陞任의 도움이 되게 하였다. 소위 4孟朔試才인 것이다. 그러나 뒤에는 現任者의 考試는 除外되고 또 考試도 太宗 16年(1416) 武學은 兵曹, 律學은 刑曹, 算學은 戶曹로 옮겨졌다. 이는 十學學官·生徒 全員을 禮曹에 모으는 煩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儒學은 따로이 成均館 등 學校도 있으나 특히 藝文·春秋·校書 三館의 現任 七品以下 參外官을 對象으로 하였다. 모두 文科及第 新進으로서 장래 官이 될 사람들인데 특히 이를 더한 것은 諸學 全般에 걸쳐 差別하는 일이 없이 그 興隆을 도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儒學은 三館諸員의 抵抗도 적지 않아 드디어 世宗 4年(1422) 11月 禮曹에서의 여터 考試를 廢止하였다. 이는 三館에 각각 講學勸獎의 規定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集賢殿의 設立도 보고 別途로 興學의 길이 세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 諸學의 教育에는 당연히 각각 教科書로서 講書籍이 使用되었다. 世宗 12年(1430) 3月 儀禮詳定所는 在來의 것을 한데 모아 諸學取才 經書諸藝數目으로서 啓하고 있다(世宗實錄 卷47. 12年 3月 戊午). 이 때 講書로서 다시 制定한 것일 것이다. 經國大典 禮典 諸科·取才, 兵典 試取條에 制定된 바의 書는 이에 바탕을 둔 것이라 생각되나 또 大典에는 女眞學이 새로이 첨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多少의 相異가 있다. 뒤에 이들 諸學은 世祖 8年 3月, 12年(1466) 正月의 官制改正과 더불어 각각 本司로 吸收併合되고 本司의 堂上提調·別坐·訓導 등으로 하여금 訓育에 당하게 했다. 이 때 司律院은 律學으로하고 風水學은 地理學, 陰陽學은 命課學이라 改稱, 天文學과 함께 觀象監에 所屬하였다. 이렇게 하여 十學의 名稱은 廢止되었으나 諸學 그 자체는 罷止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分科하여 각각 本司에 속하고 4孟朔試才에는 書員·道流도 첨가되어 오래도록 행해진 것이다.

III.

다음으로 學術興隆 文化振興의 中心的 機關이 된 것은 소위 殿閣의 制度였다. 集賢殿은 世宗 2年(1420) 3월에 創設되어 그 活動도 눈부신 바가 있었으나 그 生命은 37年間의 短命으로 끝났다. 뒤에 藝文館이 이에 대신하였고 뒤이어 成宗 9年(1478) 3月 藝文館의 組織을 나누어 세운 弘文館이 있다. 이것은 오래도록 存續했으나 正祖即位年(1776)에 創設된 奎章閣으로 그 機能이 吸收된 느낌이 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이들이 文化推進의 中心的 存在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이 膨大한 藏書閣을 가지고 있으니 구태여 말하면 集賢殿·藝文館·弘文館은 國立文化研究所이며 奎章閣은 王立文化研究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館員은 國王의 侍講·顧問이며 封駁이 허락되어 一國政治에 參與하였다.

國初에는 高麗 이래의 集賢殿·修文閣·寶文閣學士가 있었고 이 學士는 太宗元年(1401) 提學

이라 改稱되었다. 大提學·提學은 二品以上, 直提學·直殿·直閣에는 三·四品文臣을 兼差하고 侍講·知制敎의 任을 띄었으나 官署도 없고 다만 名稱을 加衡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文衡之府로서 專司設立의 重要性은 이미 太宗 17年 이래 論議되고 있었다. 世宗은 即位하자 이 論議에 積極적 關心을 가지고 이를 재촉한 결과 集賢殿이 新設되었다. 이 때 修文殿·寶文閣의 稱號는 일단 廢止되었으나 11年 5월에 復活되어 世祖 6年 5월까지 계속되었다.

集賢殿의 組織은 領殿事 2(正一品)·大提學 2(正二品)·提學 2(從二品)·副提學 2(正三品)·直提學(從三品)·直殿(正四品)·應敎(從四品)·校理(正五品)·副校理(從五品)·修撰(正六品)·副修撰(從六品)·博士(正七品)·著作(正八品)·正字(正九品)로 提學以上은 兼官, 副提學以下 10員이 實官이었다. 이들 實官은 각각 차례로 陞級하나 各品은 2員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뒤에 定員은 5員을 더하고 다시 16년부터 18년에 이르는 사이의 通鑑訓義·綱目訓義 撰修에는 32名에 이르는 일도 있으나 이것이 끝난 直後는 20員을 定員으로 하였다.

集賢殿 職員에는 다른 諸司와는 달리 格別한 職務 및 處遇가 주어졌다. 첫째 그 하나는 經筵의 兼帶이다. 經筵官은 종래 正五品以上의 文臣을 임명했으나 특히 經筵官에 副檢討官·司經을 加設하고 從五品副校理以下 參外官에 이르기까지 全員을 參加시켜 知制敎를 兼任케 하고 다시 副提學以下 校理로서 兼春秋로 하여 文科까지도 禮曹와 함께 業務케 하였다. 그 除任은 銓曹에만 맡기지 않고 本殿堂上·吏曹堂上 및 議政府의 相議薦望으로서 하는 重選이 정해졌다. 다른 諸司와 달리 특별히 早仕晚退를 規定하고(一般官史는 卯仕酉罷, 즉 午前6時 出仕·午後6時 退出, 冬期는 辰仕申罷, 즉 午前8時 出仕·退出은 午後4時였다.) 그 仕·不仕는 司憲府의 糾察을 받지 않고 直接 啓聞하여 國王이 친히 이를 統督하였다. 따라서 處遇도 좋고 直提學以下 그 班序는 各品の 首位에 두었으며 行首인 副提學단은 僉知敦寧府事의 다음으로 했으나 隨班禮秩·朝路儀物은 전혀 同例로 하였다. 둘째로 注目되는 것은 그 久任이다. 특히 年限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世宗 實錄에 의하여 諸員에 관한 것을 보면 빨라야 2年 9個月 長期者는 10年以上 最長 22年 10個月에 미치는 事例도 있다. 轉出하는 곳은 承政院·藝文館·六曹 혹은 司憲府 등의 要職으로서 다시 本殿으로 還仕하는 경우가 많다. 世宗은 殿員에게 學業으로서 終身하라고 訓戒하였는데 사실상 이를 實行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新進者에게는 특히 專心講學을 위한 機會를 주어 賜暇讀書의 例를 연 것은 특히 注目할 만하다. 8年 12月 權綵·辛石堅·南秀文에게 大提學 卞季良의 指導를 받게 하고 在家讀書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24년에는 朴彭年·申叔舟·李塏·成三問·河緯地·李石亭이 三角山 津寬寺에서, 다음 洪應·徐居正·李明憲 등이 藏義寺에서 讀書한 것이 成僉의 備齋叢話에도 보이고 있고 文宗·端宗 兩朝間도 역시 이 例에 따르고 있다.

殿員의 講學에는 隨時로 藏書의 閱覽이 허락되었으나 經史子集中 그 書를 정하여 讀書하고 每日 讀書日課를 記錄하여 月末에 啓聞하고 每月 10日 堂上의 出題에 의하여 詩文을 짓게 하고 首位 入格者는 月末에 抄寫啓聞하는 등의 規定이 있었다. 이것들은 集賢殿에 있어서의 學習規定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特記해야 할 것은 經學偏向을 경계하고 王 스스로 이를 指導한 것이다. 尹淮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鄭麟趾·金鑣에게 史學을 배우게 하였으며 鄭麟趾는 특히 算法校正官으로서 金鑣과 함께 算法·曆法을, 俞尙知에게는 儒宗 趙庸에게 律呂新書를 배울 것을 명하였다. 한편 李鳴謙·柳義孫 등을 風水學官, 辛石堅·南秀文·金禮蒙을 漢學講肄官으로 하고 뒤에 申叔舟·成三問 등을 遼東에 파견하여 韻書에 관하여 質問하게 한 것은 특히 잘 알려진 일이다. 經史 이외에 政務民生에 直接 關係가 있는 여러 學問의 중요성을 強調하고 널리 修學하여 나아가 經學을 몸소 體得하고 實學으로 할 것을 說得하였다. 이는 學術에 대한 王의 識見을 表示하는 것이다. 따라서 殿員의 活動은 여러 方面에 걸쳤으니 學習과 함께 書籍의 鈔寫·鑒校·印刷校正, 典禮制度의 調査, 諸書의 編纂撰述, 書籍의 蒐集에서 時政大事의 批判駁正에까지 이르렀다. 集賢殿은 世祖 2年(1456) 6월에 이르러 革罷되었다. 이는 당시 成三問·李塏 등 時·原任 集賢殿官員을 主謀者로 한 기타 文武臣의 端宗復立의 陰謀가 暴露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經筵도 이를 廢止하고 藏書는 모두 藝文館으로 移管하였다. 世祖가 처음 集賢殿을 重視한 것은 前年 7月 그 官給諸事는 항상 點檢하여 疏略함이 없도록 承政院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明白한 일이다. 王의 意志와는 달리 이런 措置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아이로니칼한 不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藝文館은 원래 春秋館과 아울러 一司를 이루었으나 太宗元年(1402) 7月 분리하여 本館을 祿官, 春秋館을 兼官으로 한 데서 시작된다. 그 組織沿革은 世宗·世祖 兩朝에 걸쳐 減員이 계속되었으나 世祖 12年 正月의 改正에 의하여 領事 1·大提學 1·提學 1·直提學 1·典翰 1·應教 2·奉教 1·待教 1·檢閱 4로 되었으며 그 후 奉教·待教는 각각 1員이 더 늘어났다. 領事·大提學은 兼官이며 奉教以下는 春秋館記事官을 兼帶하였다. 職掌은 오로지 詞命製進에 있었으나 敎諭 祭文과 때로는 事大文書까지도 草했으며 禮曹·成均館과 마찬가지로 文科를 主掌하였다. 世宗 16年末 이후는 直提學·直館(典翰)은 史官을 兼하고 時政記 撰修에 당하였으며 다시 成宗 2年 이후에는 在官者의 改名 給牒까지도 管掌事로 했다. 集賢殿 革罷 후 學術의 衰微를 걱정한 世祖는 5年 6月 持平 李永根 등 年少文臣 10名을 뽑아 閑職에 부치고 中庸或問·禮記 등을 주어서 讀書을 명하고 또 친히 講論도 했으며 다시 12月에는 3品以下 新進文臣 15名을 뽑아 藝文館을 兼하게 하였다. 이러한 措處는 本館이 他司에 비하여 閑暇하고 또한 곧 集賢殿의 藏書가 옮겨져 講學에 편하기 때문이다. 이들 年少文臣들은 本館官員들과 함께 隨意로 藏書를 考閱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또 새로이 藝文館의 勸課條件도 定해졌다. 每朔望 朝會後에 經史를 講하고 혹은 詩賦를 製하며 治道를 論하고 政治를 議하니 소위 兼藝文인 것이다. 이후 8年 5月에는 23名, 10年 7月에는 18名이 加置되고 있다. 王이 經筵에 나가는 일이 없었으나 王이 薨去한 후에는 藝文館으로서 經筵의 場所로 擬하고 있었던 것이다(世祖實錄 10年 5月 辛巳). 그것은 또 말할 것도 없이 集賢殿과 같은 機能을 期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世祖는 父 世宗의 薰陶를 받아 經史를 비롯하여 여러 學問에 精通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治政에 대하여도 극히 積極의이어서 반드시 傳統이나 格式에만 사로 잡히지 않았다. 輪對에는 各司 郎廳을 輪次 引見하여 下情에 통하기에 努力하고 晩年에는 注書·史官·都摠府 郎官에 命하여 光化門밖에서 京外의 庶民·賤隸에 이르기까지 民生의 利害·政治의 得失에 대하여 呼訴하는 바를 들어서 書啓하도록 하는 것 같은 가장 注目할 일일 것이다. 講學에도 文武宰臣 이외 兼藝文, 武才錄(王 스스로 將來 將帥가 될 수 있는 자 20餘名을 뽑아 武才錄으로서 訓育하였다)에게 經史·兵書·陣法을 講하게 하는가 하면 혹은 館學儒生·醫學·譯學 등 諸學의 生徒들도 引見하고 그 읽는 곳을 講하여 學習을 獎勵하였다. 특히 新進文臣에게는 經學偏向의 弊를 排擊하고 널리 여러 學問에 精通하여 實學에 힘써야 함을 경계한 것은 父王과 같다. 12年 10月 申叔舟 崔恒 등 宰臣에 命하여 易·天文·地理·醫·卜筮·詩文·書法·律呂·農桑·畜牧·譯語·算法에 이르는 諸書類聚를 編纂하고 있지만, 또 新進文臣에게도 諸學의 讀書考究의 勸獎에 힘쓰고 있다. 즉 10年 7月 天文·風水·律呂·醫學·陰陽·史學·詩學의 七門에 各門兼藝文을 주로 하는 文臣 등 6名씩을 배치하고 또 13年 7月에는 文臣 107名에게 易·易學啓蒙·禮記·周禮·左傳·通鑑綱目·宋元節要·杜詩·李白集·東坡集·莊子·老子·列子 등의 책을 分授하여 期限을 定하고 畢讀케 한 것 같은 것은 世祖朝 興學의 偉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藝文館은 文衡의 府로서 中心的 存在가 되었으나 다시 成宗元年(1470) 4月 名實共に 그 實을 가추기에 이르렀다. 먼저 다음의 15員이 加置되어 모두 知製敎를 띄고 經筵官·春秋館職도 兼帶하였다.

副提學 1(正三品)·直提學 1(正三品)·典翰 1(從三品)·應敎 1(正四品)·副應敎 1(從四品)·
校理 2(正五品)·副校理 2(從五品)·修撰 3(正六品)·副修撰 3(從六品)

이 除任에는 議政府·六曹參判 이상 및 前任政丞 등이 미리 才行兼備한 文臣 30人을 뽑아서 置簿하고 다시 이 중에서 15人을 精選하였다. 그 다음 前任政丞을 제외하고 本館大提學·提學(특히 이를 館閣堂上이라 일컬었다)이 參加하는데 이 豫薦置簿의 일을 藝文錄이라 稱하였다. 館學堂上은 主文之臣으로서 하고 館員은 모두 常參·朝啓에도 나아가고 또 實官은 모두 久任으로 하여 吏曹도 마음대로 他職에 銓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參外에는 春秋館記事官兼任의 奉敎·待敎·檢閱이 있으나 兼任 때문에 講學에 專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新進養成을 위하여 9年 2月 새로이 博士 1(正七品)·著作 1(正八品)·正字 2(正九品)를 加設하고 修撰·副修撰 각각 1을 減하였다.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集賢殿 藏書는 藝文館으로 移管되었으나 처음에는 典守出納에 缺陷이 있어 遺逸도 적지 않은 것 같다. 世祖 4年 7月에는 藝文直提學·直館(뒤에 典翰이라 改稱함) 중 1員을 管理責任者로 하고 每年 初秋에는 點檢하여 그 數를 啓聞케 하고 또 梁誠之를 提調로 하여 統督케 하였다. 그 작업이 끝난 것은 9年(1463) 5月이지만 그 사이 典守考校에 不備錯誤가

많기 때문에 藏書는 宮中の 內閣으로 옮겨졌다. 梁誠之 上書로 著名한 「朝鮮國御藏書」의 印이 編著된 것은 整理終了 후의 일이다. 다시 11월에는 이 藏書가 있는 곳을 弘文館이라 稱하고 大提學 1·提學 1·直提學 1·直館 1·博士 1·著作郎 1·正字 2를 두고 管理出納을 管掌하게 했다. 이는 모두 兼官으로 直提學은 承旨가 兼任하도록 하고 直館 이하는 藝文館員으로서 充當했을 것이다.

그런데 藝文館員은 經筵·春秋館職을 겸한다고는 하지만 實情은 修撰 이상으로 經筵官을 兼하고 奉敎以下 8員은 史官의 實務를 가지고 있으며 修撰以上の 史官兼帶·奉敎以下の 經筵兼任은 단순한 名目에 不過하다. 더우기 新設된 博士以下는 다른데 職事가 없고 同官이라고는 하지만 三者가 그 任務를 달리 하였다. 이러한 不便·不合理을 排除하기 위하여 成宗 9年(1478) 3월에 이르러 藝文館員을 나누어 奉敎以下 8員을 남기고 다른 官員은 모두 弘文館으로 옮기는 동시에 藝文館에는 따로이 直提學 1·應敎 1을 加設하여 前者는 都承旨, 後者는 弘文館應敎가 兼任하게 하여 奉敎以下를 統率하게 하였다. 從來의 藏書閣 弘文館은 여기서 一轉하여 名實共に 갖추어지는 文衡之府로서 發足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設立을 成宗 10年(己亥)이라고 하고 뒤의 弘文館志·增補文獻備考 등이 모두 이에 따르고 있다. 겨우 1年の 相違지마는 잘못되었음은 말할 여지도 없다. 弘文館의 別號인 玉堂·瀛館은 모두 宋 學士院의 名稱에 의한 것으로 本館에는 玉堂, 藏書閣에는 登瀛閣의 扁額이 걸려진데서 由來한다.

이렇게 하여 弘文館은 膨大한 藏書를 갖추고 集賢殿의 古制를 復活하였다. 뒤 燕山君 10年 12月부터 中宗 元年 9月の 復舊에 이르기까지 2個年 가까이 廢止되었으나 그 후는 高宗朝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存續되었다. 館員은 直提學 以下 2名이 交替로 入直하여 侍講 論思에 任하고 禮待가 매우 후했던 것은 集賢殿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그 여러 制度에는 從前과 다른 점도 적지 않다. 먼저 館員을 重選하는 일은 變함이 없으나 除任候補選定의 弘文錄은 本館의 獨占에 맡겨졌다. 集賢殿 및 藝文錄選定에는 議政府·六曹 및 本館 大提學·提學의 合議制였으나 여기서는 本館員만이 圈點選出하고 뒤에 吏曹에 牒報하였다. 또 館員久任의 原則이 있었으나 後述할 士風의 變遷解弛와 함께 반드시 遵守되고 있지는 않다. 혹은 中宗初年에 制定된 것으로 생각되나 遷任은 다만 臺官 이외의 他職에 任命하지 않고 그 轉任하는 때에는 本館으로 遷授하는 規則이 세워졌으나 이것도 6年 正月에는 中止되고 때로는 宣傳官의 激務로 돌려지는 일까지 있었다. 다음 賜暇讀書는 藝文館以來 踏襲되어 특히 讀書勸獎事目이 制定되었다. 처음에는 前例에 따라 讀書處를 藏義寺로 했으나 成宗 14年부터 龍山江北岸 歸厚署廢寺를 그 場所로 하였다. 이것을 改築하여 讀書堂으로 命名한 것은 24年 5月이다(曹偉 讀書堂記 續東文選 12卷). 이는 燕山朝末에 廢止되었기 때문에 中宗初年에는 舊淨樂院으로 옮기고 다시 10年에는 豆毛浦 月松庵西麓의 景勝地에 讀書堂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소위 湖堂이다(菊圃集 卷2, 湖陰集 卷8). 뒤 宣祖朝 壬辰亂後에는 다시 山寺가 사용되었고 光海君元年 11月 이후는 漢江別營이 이용되었다. 賜暇의

期間은 中宗朝 前半은 6期, 12年 7月以後는 3期으로 短縮되었다. 그 동안 正旦·冬至·大慶·大賀의는 朝會에 나오는 것을 不許하며 그 讀書한 것은 朔末에 書啓하는 동시에 每月 3次의 製述과 月季 書啓는 本館官員과 마찬가지로였다.

다시 弘文館은 成宗末年부터 士氣弛緩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燕山君·中宗朝中期까지의 사이에 특히 심하였다. 그 月課도 遵守되지 않았고 常日의 出仕, 讀書製述까지도 館員 中에는 冷笑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그 政治參與 및 封駁은 增大하였다. 侍臣論事의 일 이 強調重視되어 臺官과 表裏一體로 看做되었으며 宣祖朝 이후 黨爭의 激化는 이러한 傾向을 더욱 더 강화하여 그 渦中으로 말려들어 갔다. 그러나 때에 따라 동요한 때가 있었다고는 하나 文治의 推進力이 되고 文衡之府로서의 職能을 반드시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IV.

殿閣의 整備와 함께 이를 充實히 하는 重大한 條件은 書籍의 蒐集이었다. 이것은 歷代의 傳統的인 文化的 事業이었으나 그 中에서도 特別한 關心을 기울인 것은 世宗·世祖 및 中宗의 三朝를 들 수가 있다. 集賢殿 藏書는 처음 殿內에 두어졌다고 생각된다. 11年 새로이 宮城西門안에 本殿을 新築하고 아울러 그 北쪽에 藏書閣을 構築하였다(東文選 50 李季甸 集賢殿藏書閣頌). 世宗은 集賢殿 設立直後인 3年 4月 넠리 中外에 書籍을 求하여 納書者에게는 希望에 따라 布帛을 給하고 혹은 官爵을 주기도 했다. 또 11年 5月에는 諸道監司에게 傳旨하여 國語·聖宋名賢五百家採芳大全文粹·通鑑源委·文苑華英·朱文公集·東巖周禮證義등을 採訪하였으며 가령 不完本이라 할지라도 進上할 것을 바라고 있다. 國語는 이미 太宗 12年 8月 忠州史庫에서 春秋館으로 移藏한 諸書中에 있으나 不完全本인 것 같다. 世宗實錄 22年 6月 丙申條에는

經筵所藏國語 與音義一本 頗有脫落 求之中國 得別本 闕逸尙多 註解亦略 購求日本 又得詳略二本 兼補音三卷以來 亦且不完

이라 하였다. 一本을 具備하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全本을 얻을 것을 위하여 中國이나 日本으로 探訪하고 그래도 또 不完하기 때문에 集賢殿에 명하여 經筵藏本을 原本으로 하고 諸本을 參照하여 校合補正하는 동시에 音義補音의 不完한 것은 韻書를 가지고 이를 補充하여 끝내 鑄字所로 하여금 刊行廣布하게 하고 있다. 그 蒐書와 研究調査는 끝까지 學術的이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욱 이 해 刊本인 21卷 6冊本의 하나는 慶長 12年(譯者註 日本年號: 1607) 林道春이 影寫하여 古鈔本을 가지고 校合하고 다시 文政 5年(譯者註 日本年號: 1822) 福知淵이 校合하여 識記한 鈔本이 있다. 이는 鑄字의 覆寫인 것이 歷然하니 原本은 甲寅字本이 틀림없다. 卷頭に 原本識語가 있어 世宗實錄의 記事와 큰 差가 없다. 成堂堂善本書目에 보이는 朝鮮活字本 5冊도 이 甲寅字本이 아닌가 한다. 또 世宗 22년에 明廷이 大明集禮를 刊行한 것을 알

고 赴京使에게 購入해 올 것을 명하고 開城府留守에게 그 刊板을 가지고 東國文鑑・銀臺集 御製大平集・新千集・儀禮・三禮疏・孟子疏・論語 등의 印進을 求하고 있다. 前者는 典禮諸制를 위해 必要한 書이며 어느것이나 藏書充實을 위함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16年 通鑑訓義의 編修事業이 시작되자 그 註釋本 가운데 最善本인 胡三省音注의 入手에는 가장많은 苦心을 하였다. 처음 17年 3月 幼學 趙須로부터 不完本 100卷을 얻어 곧 下三道에 購求遺典官의 特使를 파견하여 採訪했으나 얻은것은 前後77卷의 殘缺本에 不過하였다. 王의 熱望으로 3月末 赴京길에 오른 賀登極使 沈道源에게 胡三省音注 및 趙完壁著 通鑑源委의 購求를 禮部에 咨請하게 하였다. 이 보다 앞서 明의 外國人에 대한 賣買禁令에 의하여 朝鮮도 赴京使行에는 監察을 派遣隨行시켜 특히 糾察에 당하게 하고 있었다. 더우기 가장 必要로 하던 藥材・書冊도 書冊만을 除外하고 藥材만을 禮部에 咨請하여 貿易하는것이 議定된것은 14年 10月의 일이다. 따라서 이 咨請은 領相등의 議論을 거친 뒤의 일이기는 하였으나 3年前의 議定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런만치 王의 熱意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7月 沈道源이 歸國하여 胡三省音注 一部를 바쳤으나 다시 翌月 賀節制使 南智를 派遣할 때 거듭 同書 및 通鑑源委 金履祥通鑑前編・陳經歷代筆記・宋史 등의 書를 奏請하게 했다. 이 때 從事官에게 준 賣去事目的 概要는 다음과 같다.

1. 本國未到의 明廷所撰 史書를 細問調査하고 綱目書法・國語등과 아울러 반드시 2部를 購入하여 脫落에 對備하도록 할 것.

1. 性理大全版木이 만약 北京에 있을 때는 紙墨을 준비하고 私印을 許可해 줄 수 있느냐를 물어 볼 것.

1. 永樂大典刊行의 有無 및 中朝 鑄字의 狀況을 細微하게 詳問하여 올 것.

結果는 音注의 頒賜를 얻는데 그쳤다. 音注는 이미 2部를 얻었으나 뒤의 胡三省藏書錄의 購入下命과 함께 通鑑關係類書의 採訪에 얼마나 뜻을 다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 이 때 史書는 宣宗朝(譯者註：明皇帝 1425—1435)에 歷代臣鑑이 있으나 永樂大典과 마찬가지로 未刊이라는 것과 大全板木은 南京에 있고 아직 鑄字는 使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報告되었다. 이는 당시 明에서 書籍出版・印刷에 관하여 格別한 注意를 쏟아 그 情報를 얻는 것에 힘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事例일 것이다.

文宗朝에 있어서도 必要한 書冊은 集賢殿으로 하여금 그 書目을 抄出하게 하고 赴京使에게 購入하도록 하였다. 世祖도 역시 書籍의 蒐集保存에 깊은 關心을 보인 것은 결코 父王에 지지않는다. 3年 5月 八道監司에 命하여 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등 모두 18部의 書를 들어 公私處 및 寺社에 널리 採訪進上할것을 命하고 있다. 또한 특히 中朝尋訪書目을 만들어 藝文館에 備置하고 있었음이 注目된다. 5年 8月 通信使 宋處儉을 日本派遣할 때에는 本國에 없는 書冊의 購入費用으로 紬 300匹・白金 500兩을 주었다. 이 一行은 同年 10月 歸國길에 不幸히도 難破하여 消息이 끊어졌다. 이 이외 8年 正月 琉球使節 普須古・蔡環의 歸國때에 中朝尋

訪書目을 주어 所有書籍의 送付를 依賴하고 있다. 다시 王은 蒐書와 함께 藏書의 整理補修에도 특히 힘을 기우렸다. 集賢殿藏書를 藝文館으로 옮긴 후 梁誠之를 提調로 하고 文臣 및各司의 參外 吏胥 등을 모아 書籍의 考閱·整理에 당하게 하였다. 이는 破損·缺本을 調査하여 補修하고 摺目錄을 作成하고 1部 뿐인 것은 鈔寫하여 副本을 만들어 遺失에 對備하는데 있었다. 調査整理의 作業을 일단 끝낸 것은 9月 5日이었다. 이 藏書閣을 弘文館으로 고친 것은 그 후의 11月이었다. 實錄에는 이 해 正月己酉條에 「令藝文館擇出所藏諸書 各二件 移藏于古東宮」이라 있다. 그러나 이것은 꼭 副本作成의 일이 끝났다는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것 같고 특히 內府의 藏書로 한다는 目的이었을 것이다. 梁誠之는 東國所撰의 書冊部數가 不足한것은 印出·鈔寫·혹은 購求에 의하여 10部로 하고 弘文·春秋館·三史庫에 각 2部를 收藏해야 할 것. 또 弘文·春秋館所藏의 元史·宋史 등과 같이 1部 뿐인 書冊은 傳寫하게 하든지 혹은 中外에 購求하여 3部를 具備할 것을 上書하고 있다. 世祖朝에 있어서는 蒐書 이외에 藏書의 調査·整理·修補 및 副本·總目作成이 特筆할만 하다.

中國書籍貿易은 藥材·尙方의 그것과 함께 公貿로서 定着하였다. 그러나 成宗·燕山 兩朝에서 中宗朝 前半에는 一時的으로 停廢한 일도 있다. 특히 燕山末年에 있어서의 失政의 影響한 바는 意外로 커서 10數年은 書籍에 대한 關心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다. 校書館과 같음도 그 紀綱이 紊亂해져서 鑄字의 僞佚이 잇따라서 木字로 補充하는 일이 많고 字體의 訛鄙·用紙의 粗惡, 더우기 讎校도 잘 되지 않고 하여 印刷의 不精함이 가장 顯著하였다. 中宗 10年 11月 弘文館 副提學 金謹思의 建議는 이에 대한 反省이며 前代의 文藝復興을 강하게 要望한 것이었다. 이때 鑄字都監이 設置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동시에 禮曹에 命하여 赴京使館의 中國書購求, 國內에 있어서의 遺經逸書의 進獻을 曉諭하게 하였다. 翌年 9月 禮曹는 中原에 聲息이 있다는 原因을 들어 聖節使行에 의한 書冊貿易이 不可하다고 主張하였다. 聲息이란 이미 成化(譯者註: 明憲宗年號 1465—1487) 末年부터 나타난 蒙古 達延汗의 北邊侵寇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에 앞서 1·2年間에는 大同·宣府 등을 寇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王은 禮曹의 請을 물리치고 購書勵行을 命하고 있다. 또 당시 一般奢侈의 風이 流行하고 使行譯官 등의 紗羅綾段 등의 貿易이 점점 增加했기 때문에 13年 4月 貿易에 制限을 加했으나 書籍은 藥材·弓角과 함께 除外되었다. 그러나 이 書籍貿易은 뒤에 이르러 점점 困難하게 된것 같다. 實錄 36年 6月 丁丑 王의 政院에 대한 말에는

求賀書冊美事 而雖令通事持價質之 勢未易得 故時時還賚價物而來 徒爲有弊而已

라 하고 있다. 생각컨대 당시는 燕山朝 以來 端川을 비롯하여 銀의 產出이 增大하였으나 國內에 있어서의 行用은 없었고 赴京使行을 무우트로 하여 많이 中國으로 流出되었다. 즉 北京·遼陽 등의 交易에 쓰여졌으며 따라서 中國品の 輸入도 增大하였다. 그러나 政府는 貿易에 制限을 加하는 동시에 銀의 帶出에는 새로운 法律을 정하여 嚴重히 이를 取締하였다. 書冊購入費로사

戶曹에서支給한 것은 물론 銀이 아니고 舊來와 같이 正布 등이었을 것이다. 中國書肆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交易不調로 끝나서 譯官 등은 헛되이 價物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必要한 書冊은 弘文館에서 抄出하게 하여 禮部에 그 購求를 奏請하고 將來의 일을 圖謀하여 특히 「連續許買之意」를 咨文에 插入하였다(中宗實錄 36年 6月丙戌條). 이 때 弘文館大提學 金安國은 命에 의하여 藏書閣 및 東西文武樓의 藏書를 모두 調査하되 歷代 書冊에 의하여 經書 理書를 主로 하고 醫藥·天文·地理 등 諸子百家類도 多數를 抄出하였다. 또 王 自身도 求買書冊記를 만들어 金安國에게 내렸다. 이 求買書目은 9月 3일에 出發한 冬至使 許磁의 使行에 부치되 譯官으로서 하지않고 특히 能文의 吏文學官 鄭蕃에게 맡겼다. 이는 원래 一時에 買來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使行이 있을 때마다 價物을 支給하여 얻는대로 購入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計劃은 使臣의 配慮가 잘 되지 않아 禮部의 奏題를 얻을 수가 없어 明廷의 保證은 얻지 못하였다. 이 때 겨우 春秋集解·大明律讀法 등 多數의 책을 求할 수가 있었으나 그 후의 不安은 消滅된 것이 아니었다. 37年 10月 王은 宋 太宗의 故事에 따라 中外에 遺逸 書籍을 購募케 하였다. 禮曹는 詳細한 事目を 草하여 內閣·漢城府·開城府·八道에 通達하고 坊曲村里에 이르기까지 告示하여 周知의 徹底를 기하였다 事目は 周到한 用意을 다하여 必要한 書冊은 빌려 곧 開印할 것, 借用·獻納 모두 특히 恩賞을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다(中宗實錄 37年 10月戊寅). 이 成果가 어떠하였는가는 유감스럽게도 何等의 明記가 없다. 이후 宣祖·光海君·正祖 朝에 있어서도 訪書上納의 일은 행해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大規模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과는 달리 赴京使行의 購書는 오래도록 繼續되었다. 政府의 命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個人的인 것도 多數에 이르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柳希春의 眉巖日記草에는 곳곳에 興味있는 記事가 많이 담겨져 있고 明末淸初 사람인 姜紹書는 그 著書 韻石齋筆談에서 「朝鮮人好書」라 題하여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朝鮮人最好書 凡使臣入貢 限五六十人 或舊典·或新書 或稗官小說 在彼所缺者 日市中 各寫書目 逢人遍問 不借重直購回 故彼國反有異書藏本也」

V.

中央의 印刷機關은 高麗의 制度를 이은 校書館이 있고 또 活字印刷에는 鑄字所가 設置되었다. 校書館은 景福宮內 司饗院의 南쪽에 있어 이를 內館이라 한데 대하여 南部薰陶坊에 있는 外校書館을 外館이라 불렀다. 國初는 校書監이라 했으나 太宗元年(1401) 7月 校書館으로 改稱하고 世祖 12年 正月로부터 成宗 15年(1466—84)까지는 典校署라 稱하였다. 組織의 改變도 종종 있었으나 世宗朝에는 提調 이외에

判事 1(正三品)·校理 1(從五品)·副校理 1(從六品)·郎 2(正七品)·著作郎 2(正八品)·

校勘 2(正九品)・正字 2(從九品)

를 두었고 이것에 提舉・別坐 2員이 있었다. 世祖의 改革은 더 縮少 格下시킨 것이었으나 成宗 15年の 官號復舊와 함께 組織은

判校 1(正三品)・校理 1(從五品)・博士 2(正七品)・著作 2(正八品)・正字 2(正九品)・副正字 2(從九品)

로 되었다. 參外의 官職은 世祖朝의 改正에 따른 것이다. 經國大典에는 이 이외 從5品에서 從6品에 이르는 別坐・別提를 4員까지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 胥吏・工匠・奴僕이 所屬한것은 물론이지만 다시 처음에는 幹事僧이 이에 屬하였다. 아마 彫篆・刻板・印摺 등에 使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成宗朝에 들어와서 廢止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 그 機構에 多少의 變遷이 보이고 正祖元年(1777) 12月 奎章外閣으로 하여 奎章閣의 所屬이 되었다. 즉 芸閣이다.

校書館은 開板印刷 이외에 印信篆刻・祭醺・祝疏의 寫書・刻板까지도 業務로 했다. 따라서 館員에는 字學(篆書・八分楷書)의 學習精熟이 강하게 要請되어 新及第除任에도 특히 善書를 選擇하고 처음에는 提舉・別坐, 世祖末 이후는 別坐・別提로 하여금 字學의 敎育에 당하게 했다. 勤政殿의 東西에 있던 隆文樓・隆武樓는 本館의 藏書庫로 文武樓라고도 略稱되었다. 弘文館 登瀛閣・成均館 尊經閣과 같이 政府의 三大書庫이다. 外館에는 聽事廳 이외에 廣大한 板木貯藏庫인 板堂이 構築되어 있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京都 校書館 李承召記)

書籍院은 令1(從七品)・丞2(從八品)・錄事2(從九品)・司吏2의 組織을 가지고 있었으나 鑄字所의 그것은 明確하지 않다. 上記와 같이 처음에는 4인의 提調를 둔 程度였기 때문에 文臣 數名의 任命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世宗은 承政院의 統督下에 두고 實務에 僧人・書員・齋郎이 있었으며 工匠은 他司에 비하여 특히 이를 優遇하였다. 書員은 처음 校書館書員의 兼任으로 했으나 7年 이후에는 專任으로 하고 있다. 校書館도 역시 多忙하였고 또 鑄字所도 獨立된 專司였기 때문이다. 鑄字所는 처음 關內衙門으로서 設置되었으나 한 때 關外로 옮겨졌다가 17年 9月 다시 景福宮안으로 돌아 왔다. 그 舊所는 板堂으로서 使用하고 校書館의 管理로 했다. 校書外館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다. 鑄字所는 世祖6年(1460) 5月 校書館에 併合되었으며 專司로서의 存在는 半世紀도 되지 못하였다.

中央의 印刷機關은 上記 兩者에 限하지 않는다. 世宗末年에서 文宗即位 당시에는 宮中에 正音廳, 또 世祖初年에는 內經廳이 있고 그 7年에서 成宗 10年前後에 걸쳐서는 刊經都監이 設置되었다. 宰臣 重臣을 都提調・提調로 하고 僧信眉・弘濬・學悅・學祖 등 多數의 僧을 더하여 佛典註解 및 그 國字譯을 整版・鑄字로서 刊行하였다. 成宗2年 당시에는 世祖때 보다는 다소 縮少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데도 役夫工匠 170餘人 糜料月 200石이었다고 한다. (成宗實錄 2年 9月 甲午條) 그 規模가 어떠하였는가를 推察할 수 있다. 이 이외에 中宗 10年末에는 上述과 같이

校書館의 機能 低下를 저어하여 따로이 鑄字都監을 設置하였다. 宣祖 壬辰·丁酉亂後는 地方生産의 低下에 따른 政府財政의 困難에서 校書館보다는 訓練都監이 開板事業에 活躍하였다. 新設 軍門으로서 그 財政도 獨立해 있고 校書館에 비하여 풍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光海朝에 校書館도 復活하여 活躍한 것은 光海君日記에도 찾아 볼 수 있으나 또 따로이 書籍校印都監을 두고 高麗史·龍飛御天歌·新增東國輿地勝覽·東文選 등의 開板과 함께 8年 8月 新字까지도 鑄造하게 하였다. (光海君日記 8年 8月 己未·10年 7月 戊申條) 宣祖實錄의 印成은 翌年 8月末의 일임으로 이 新字를 使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혹은 顯宗 9年 守禦廳에서 鑄字鑄造(顯宗改修實錄 9年 8月 辛未·13年 10月 2日 乙巳條)가 이루어졌고 다시 韓構字와 같이 金錫胄의 私家鑄造도 있다. 그러나 整版·鑄字印刷 어느 것이든지간에 印刷文化의 中心的機關으로서 校書館은 眞實로 貴重한 存在였던 것이다.

다음에 鑄字略年表를 실는다. 前間恭作先生外 많은 先人·同學의 業績에 힘입은 바가 많으나 역시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다. 斯界 學者들의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鑄字略年表

太宗 3 (1403) 癸未字	10餘萬字, 字本古注書經·詩經·春秋左氏傳, 權近鑄字跋	[十七史纂古今通要·音注全文] [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世宗 2 (1420) 庚子字	李咸南汲等銅板字樣改鑄 卞季良鑄字跋	前漢書(平) 辭學指南(東) 選詩演義(蓬) 戰國策(內)
世宗 16(1434) 甲寅字	20餘萬字, 字本爲善陰陽·孝順事實, 金鑄鑄字跋	綱目思政殿訓義(蓬) 大學衍義(零本·私) 皇華集(世祖庚辰 校正刷·私) 北史(蓬)
世宗 18(1436) 丙辰字	大字, 晉陽大君書	綱目思政殿訓義(蓬)
文宗即位年(1450) 庚午字	安平大君書	古今歷代史略(足)·古文眞寶後集(龍)
世祖元 (1455) 乙亥字	姜希顔書	楞嚴經(天)·孔子家語(私)·東文選(蓬)·六帖直解(內)·大明律講解(尊)
世祖 3 (1457) 丁丑字	字本世祖御筆 金剛般若經	
世祖 7—14(1461—68)	刊經都監鑄字?	
世祖 11(1465) 乙酉字	鄭蘭宗書	唐書(書)
成宗 15(1484) 甲辰字	30餘萬字, 字本 歐陽文忠公集·古今列女傳	私淑齋集(蓬) 東國通鑑(尊) 新編事文類聚(東) 御藥院方(內)
成宗 24(1493) 癸丑字	字本 明版通鑑綱目	東國輿地勝覽(京) 孫子家註(書)
中宗 11(1516) 丙子字	字本唐本資治通鑑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滌奎律體(蓬)·關里志(內)
宣祖 6 (1573) 癸酉字	甲寅字改鑄字	湖陰雜稿·梅月堂集·箋註靖節先生集(蓬)
宣祖 13(1580) 庚辰字	甲寅字改鑄字	孝經大義·諺解(尊) 小學諺解(宮)
宣祖 33(1600) 庚子	訓練都監木字	黃帝內經素問·素問入試運氣論奧(竹)
光海君8(1616) 丙辰字	書籍校印都監鑄造	(宣祖實錄)
仁祖 11(1633) 癸酉字	元宗御筆	元宗御筆孟子諺解(永)

孝宗 8 (1657) 丁酉	倣甲寅字	康熙丙午司馬榜目・陸宣公奏議(東)
顯宗 9 (1668) 戊申	守禦廳鑄造, 11萬餘字	勘亂錄(東) 顯宗實錄
肅宗 8 (1682) 壬戌	韓構書, 金錫胄私家鑄造 肅宗21 乙亥(1695) 政府買收	潛谷遺稿・樂全堂集・東江集・春沼州 柳柳州文抄・方正學文抄(東)
肅宗 20(1694) 甲戌	明體字(老論字)	疎齋集・息庵集・文谷集・東國史 略 經禮問答(東)
肅宗 24(1698) 戊寅	倣甲寅字	受教輯錄(東) 均役事目(京)
景宗 2 (1722) 壬寅	明體鐵字(少論字)	藥泉集・晦隱集・夢囈集・昆崙集 董士集, 西坡集, 魯陵志(東)
英祖 46(1770) 庚寅字	東國文獻備考印刷을 위해 鑄造 金致仁 鑄字跋	東國文獻備考(國・東)・雅亭遺稿 ・攷事新書・松溪集(東)
英祖 48(1772) 壬辰字	15萬餘字, 字本, 內藏甲寅字本, 心經, 萬病回春, 東宮正祖의 命에 의한鑄造	心經附註, 兩朝入學日記抄錄, 雅 誦, 經書正文(東)
正祖元 (1777) 丁酉字	15萬餘字, 倣甲寅字, 平安監司徐命 膺 平壤監營에서 鑄造	增正交隣志・弘文館志・奎章閣志 (東)
正祖 6 (1732) 壬寅	改鑄韓構字, 8萬餘字, 監司徐浩修, 平壤監營에서 鑄造	文苑編載, 豐沛寶興錄(東)
正祖 16(1792) 壬子	生生字, 木字大小 32萬 1千餘字, 字本, 康熙字典	人端錄(東大)
正祖 19(1795) 乙卯字	整理字, 大小30萬字 字本生生字	華城城役儀(軌)洪翼靖奏藁(東) 弘齋全書(京・靜)
	新鑄諺字 4400字	五倫行實圖(東, 但咸豐九刊 再鑄字)
正祖 21(1797) 丁巳	春秋綱字 5260字	春秋左氏傳
純祖 15(1815) 乙亥	聚珍字, 奎章閣提調南公轍鑄造	歸恩堂集・金陵集・保晚齋集
純祖 21(1821) 辛巳	全史字・字本, 乾隆勅版二十一史	顯翁續藁・再續藁・燕巖集・近齋集・ 各國約章合編(東)
哲宗 9 (1858) 戊午	整理字・韓構字 33萬餘字再鑄	
高宗 20(1883)	鉛字, 8月 博文局을 두고 井上角五 郎을 초빙하여 主宰시킴	漢城旬報(東大)・農政撮要(東)

이 略年表는 政府의 鑄字에만 限하였다. 傳存印本은 한 例로서 든데 불과하다. 그러나 宣祖 이전의 것은 訛字나 木字가 混入하는 것을 避하고 될 수 있는대로 鑄造年次에 가까운 刊本을 선택하였다. []內의 것은 日本에서의 存在는 發見되고 있지 않다. 略號는 印本の 所在를 가리킨다.

東=東洋文庫・內=內閣文庫・蓬=蓬左文庫・足=足利學校遺跡圖書館・天=天理大學圖書館・書=書陵部・京=京都大學附屬圖書館・尊=尊經閣文庫・宮=宮城縣立圖書館・永=永平寺・龍=龍國大學附屬圖書館・東大=東京大學附屬圖書館・平=平中芥次博士・國=國立國會圖書館・私=筆者

鑄字鑄造法에 관하여는 다행히 成倪의 記錄이 있다. (慵齋叢話 7)

先用黃楊木 刻諸字 以海蒲軟泥 平鋪印板 印着木刻字於泥中 則所印處 ‘凹而成字 於是合兩板 鎔銅從一穴瀉下 流液分入凹處 一一成字 遂剝剔重複 而整之

요컨대 鑄型은 組合型을 使用하고 있으나 資材에 黃楊木을 쓰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黃楊木의 和名(譯者註; 日本名)은 「ツゲ」이다. 材質은 堅固하고 粘性이 强하며 더욱 나무의 理(木理)이 없

다. 그런데도 彫刻하기 쉬운 것이 特色으로 일찌기 梓宮을 만드는데도 썼으며 특히 그를 의하여 禁山도 두어졌었다. 오늘 날 日本에서는 梳〔빗〕, 印材, 測量器 등에 널리 使用되는 高價한 木의 하나이다. 따라서 黃楊木은 15,6世紀에는 忠淸道·黃海道로부터, 뒤에는 江原道로부터의 貢物로서 校書館에 上納하였다. 鑄字는 書寫·刻字·鎔範·鑄成·鋟에 의한 完成이 그 工程이지마는 原型이 되는 刻字가 가장 중요하다. 字形筆勢가 쓰여진대로 忠實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黃楊木이라야만 가능하다. 더욱 普通的 木活字는 灰木檀·梨·梁·山櫻 등이 쓰여졌다. (五洲衍文長箋散稿卷24 鑄字印書辨證說) 灰木檀의 日本名은 未詳이다. 梁는 梁棠으로 俗名으로는 自作이라 하였다. 後述하는 校書館의 外貢인 自作板(字作板이라고 함)은 主로 이 木板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던 鑄字中 甲寅字는 가장 뛰어났으니 徐榮輔의 評語에 「盡善盡美」(弘齋全書 日得錄)라 한것 같이 鑄金藝術의 美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孝順事實·爲善陰陽을 字本으로 한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겨우 後者는 明·解縉等編 永樂十七年 御製序刊本임을 알았다. 그 刻字는 圖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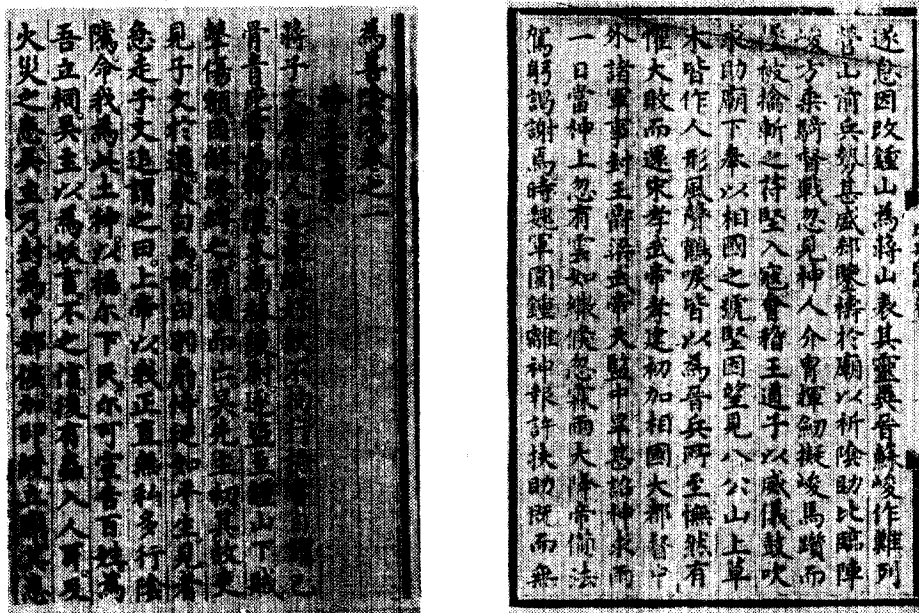


圖 1. 爲善陰陽(永樂 17年御製序刊本)

그러나 상세히 보면 甲寅字는 그 臨書인데 字本보다 雅味, 氣魄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愛好를 받아 몇번이나 改鑄를 加하고 19世紀에 이르기까지 使用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衛夫人字라 할 理由가 없다는 하는 것은 일찌기 徐命膺이 說破한 대로이다. (保晚齋集 奎章字瑞記)



圖 2. 爲普薩文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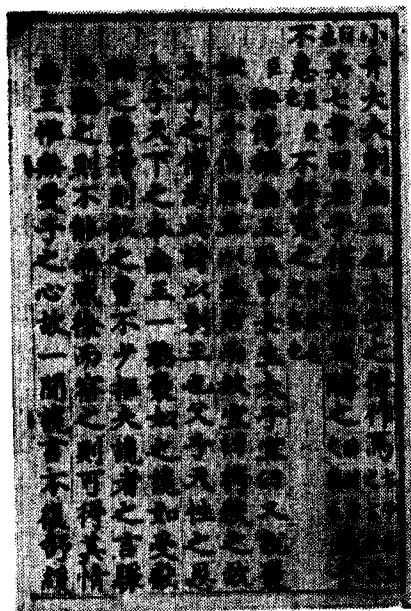


圖 3. 甲寅字大學衍義(零本一冊 家藏)



圖 4. 地藏菩薩本願經(安平大君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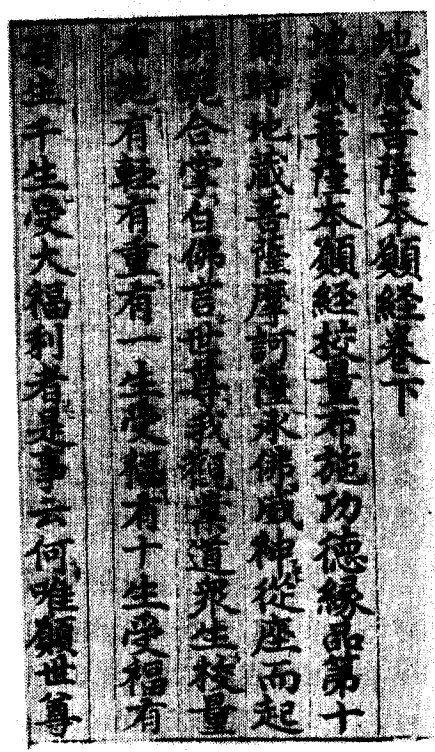


圖 5. 整版 地藏菩薩本願經 卷下(正統 14 年 7 月刊)

安平大君 璿의 手跡에 의한 庚午字는 成倪이 壬申字라 일컫고 文宗 2年鑄造라 하고 있으나 그것이 不當하다는 것은 近者에 쓴 千惠鳳 助教授의 論考(成大論文集 13輯)와 같다. 筆者는 正音廳에서의 鑄造였다고 생각한다. 더욱 여기에 紹介해 두고자 하는 것은 整版本으로서 正統14年 譯者註; 明 英宗年號 1449) 7月 安平大君 璿의 跋文을 부친 地藏菩薩本願經 3卷 1冊 6行 17字의 存在이다. (天理大學藏) 中卷末尾一葉에는 孝寧大君·安平大君·留守 姜碩德以下 施主刻手 등 84名の 刻記가 있다. 跋文은 行書體에 가깝고 매우 아름다운 筆法으로 凜凜飛動의 勢가 있어 大君 親筆의 模刻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本文도 역시 足利學校本 十八史略에 비해 보면 혹 그의 筆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正統 14年은 庚午의 前年이다. 庚午字에 관한 좋은 資料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乙亥字는 大·中·小 3種이 鑄造되었다. 이 3種을 併用해서 일찍 刊行한 것에는 刊經都監本인 御譯大佛頂首楞嚴經이 있다. 이는 卷 5·6 2冊의 零本이 있는데 天理大學所藏 今西文庫本에 있다. 이 안의 諺字는 혹 刊經都監의 新鑄가 아닌가 한다. 또 乙亥字에 대하여는 刊經都監 設置以前인 世祖 3年 懿敬世子璋의 逝去를 슬퍼하여 그 追福을 위해 內經廳을 두고 經典의 轉寫, 翻譯, 注釋纂定 刊行을 행하였다(拙著 李朝貢納制の研究 六編二章). 이 때 특히 王의 親寫 金剛經字에 의하여 鑄字가 新造되었다. 이것은 또 前揭 千助教授의 精密한 研究에 의하여 이미 明白해진 것으로 큰 收穫이라 하겠다(歷史學報 3·5·6合輯). 그리고 刊經都監에 있어서도 新字鑄造의 일이 있었음을 推察된다. 傳本은 그 管見이 없으나 睿宗實錄 即位年 9月丙寅條 時弊로서 革祛해야 할 것에 대한 議政府의 啓에「一停慶尙道刊經都監質銅 其已質者 令本道觀察使 照敬差官事目 納所在邑 錄會計」의 1條가 있다. 이 1條에 대해서는 혹 銅字의 補鑄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一面 鑄造의 可能性을 推察케 하는데 足한것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甲辰字 字本이 古今列女傳, 歐陽文忠公集이며 不足字는 朴耕의 補寫에 의한것임은 金宗直鑄字跋에 明白히 적혀 있다. 그 中國本이 언제의 刊本인지는 未詳이나 筆者의 좁은 소견(管見)이 미치는 바로는 前者는 明·解縉編 永樂元年 9月 御制序의 南京國子監刊本 3卷이며 後者는 明·曾魯考異, 陳斐校勘의 正統 11年刊本 50卷이다. 兩者가 年次의 거리는 있으나 字體는 서로 닮았는데 烈女傳의 字劃은 조금 작고 가늘다. 甲辰字는 그 覆刻이 아니고 臨書로서 書體는 서로 닮고 있는 筆勢는 더 낫다. 金宗直은「明正妍妙 累累若貫珠」라는 評語를 쓰고 있으나 정히 正鵠을 얻은 것이라 하겠으며 더군다나 清楚하다. 다음 中宗14年 己卯에 鑄字가 만들어 졌다는 說도 있으나 筆者는 否定說을 取한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金元龍 教授도 主張하고 있으며(韓國古活字概要) 丙子字本 이외 宣祖까지의 印本에 이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볼 수 없다. 다음 宣祖 6年 癸酉字·13年 庚辰字에 관하여는 일찍기 記述한 대로이다(朝鮮學報 二十七輯 庚辰字本孝經諺解と小學諺解). 어느 것이나 甲寅字의 改鑄字이지만 庚辰字는 癸酉字보다 뛰어나다.

丙辰字라 할 수 있는 光海朝의 鑄字鑄造는 同日記에 明記가 있으나 그 印本에 대하여는 宣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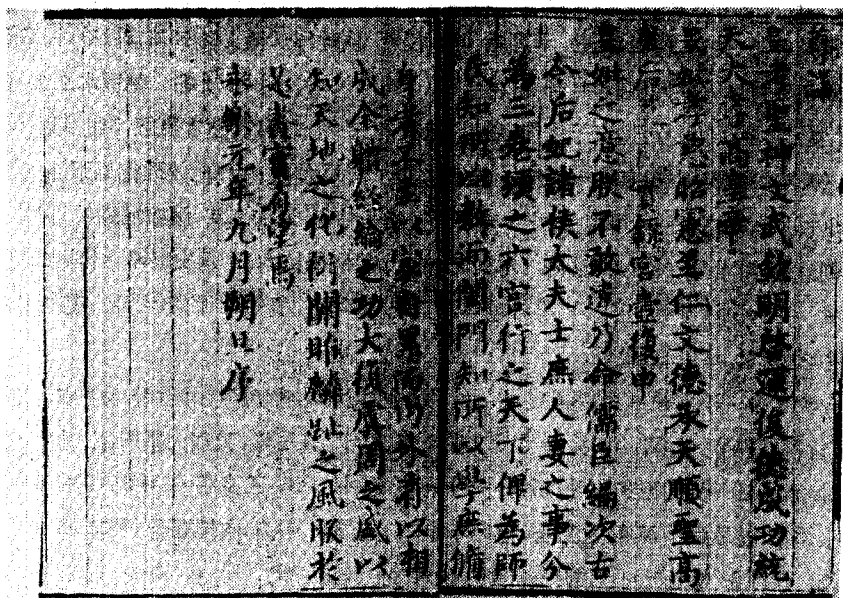


圖 6. 明解續編 古今烈女傳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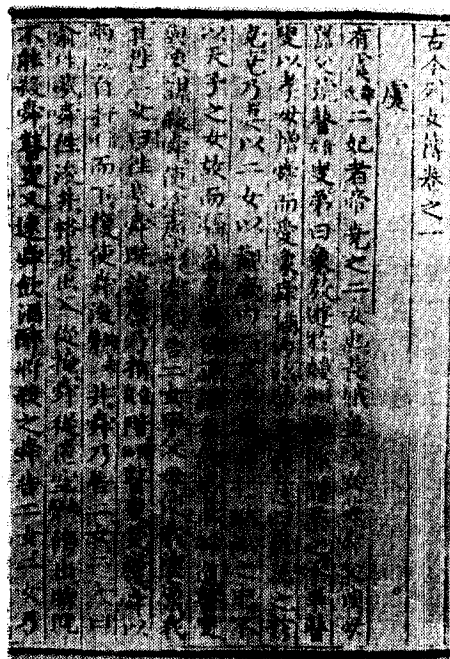


圖 7. 明解續編 古今烈女傳 本文

實錄 이외에 이를 볼 수가 없다. 다음 중래 紹介되어 있지 않지만 仁祖 10年에도 新字가 鑄造되었다. 鄭元容의 鑄字所鐵木鑄字(鄭元容 袖香編 書物同好會會報11 駝駱山下人 鑄字雜記(一) 引用에 의함)에 「元宗御筆孟子 五三九四 諺字四六〇五 大字四三五」로 실려 있으니, 즉 哲宗 8年 8月의 火災로 잃어버린 鑄字의 하나인 것이다. 이 印本은 故金澤庄三郎 先生의 舊藏으로 현재 永平寺에 收藏되어 있다. 外題에 御筆孟子諺解, 內題에 孟子諺解라고 있는 14卷本(10行, 1行 19字)으로 末尾에 「御製御筆元宗大王御書孟子諺解跋」이라 題한 仁祖의 御筆跋을 부쳤다.

洪惟 我元宗大王 睿智天成毓德 潛邸履屯益亨 令聞彌彰 當彝倫敦誠 駭機溢目之秋 寂寞深宮 鬱悒遭日 而念書絕於他事 心每存於經籍 時操鐵文之管 親寫鄭聖之書暨正音 凡二篇焉 體勢遒勁 森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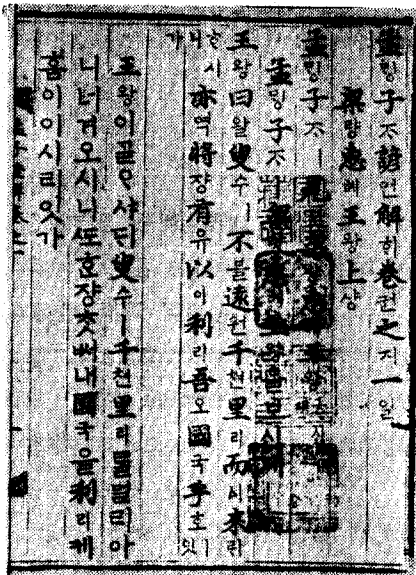


圖 8. 元宗御筆孟子諱解
(仁祖10年刊 鑄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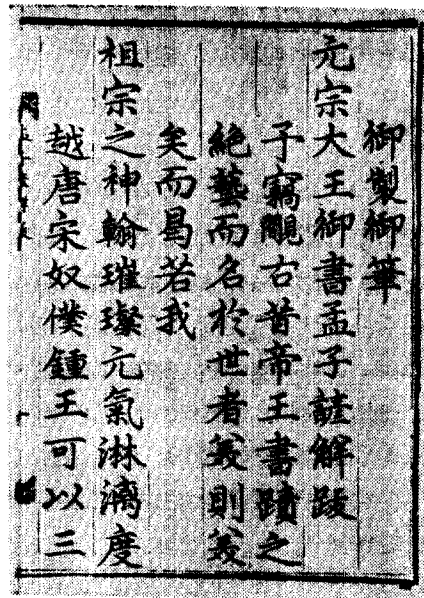


圖 9. 元宗御筆孟子諱解
仁祖御製跋

飛動 手澤炳然 若新揮洒 雙筆跪讀 感慕深 而亦有以欽仰大聖人孜孜之心 不以艱險而或忽也 惜編帙脫漏 不充成書 予深俱超詣之心畫泯焉 先以昭示於後 爰命肆字之官 另爲精摹 分字類聚堆移增補 至若全缺之字 予不發筆拙 依樣畫葫而填補之 用成七篇訖 遂爲之繕梓 頒示群臣 使我聖祖縱之聖 能庶乎其永有傳玩于千億 而無窮矣 歲在癸酉孟夏之月既望謹跋

元宗은 仁祖의 父 定遠君 玆로 光海君 11年 12月에 薨하였다. 仁祖即位와 함께 大院君으로 追尊하고 다시 10年 5月19日 元宗으로 追封, 翌年 5月 明의 追封誥命을 받았다. 本書의 刊行은 그 直後의 일로 鑄字는 元宗 및 仁祖御筆에 의한 것이다. 袖香編에 실린 元宗御筆孟子라 있는 鑄字는 正히 이를 가리키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이 외에도 同鑄字에 의한 刊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明確하지 않다. 또 仁祖이후의 鑄字에 관하여는 앞의 年表에 실린대로이며 前間先生外 先人의 所說도 있고하니 특히 言及해야 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宣祖以前 舊鑄字의 많이는 新字鑄造가 있을 때마다 資材로서 鎔解하여 使用되었다. 癸未字는 일찌기 庚子字 鑄造때, 庚子字는 庚午字 鑄成가지만, 또 庚午字는 乙亥字의 資材가 되었다. 그 후의 活字도 연이어 같은 運命을 더듬어 宣祖13年 庚辰字 鑄造時에는 舊甲寅字·甲辰字·癸丑字·甲辰字·丙子字도 없어졌으며 뒤에는 庚辰字·乙亥字만이 남겨졌다고 생각된다. 宣祖 實錄 44年 4月 乙未條에 의하면 武經七書의 印出에 「以乙亥庚辰字 刻日印出 入內」의 傳旨가 있다. 실제로 同王 36年 5月부터 2年 9個月이 걸려 重印한 歷代實錄은 庚辰字 乙亥字가 使用되고 있다.

더우기 中宗·仁宗·明宗實錄때쯤 되면 乙亥字 木字의 混入이 많이 눈에 띈다. 이들은 가장 뒤늦게 印刷되어 庚辰字의 欠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VI.

校書館의 印刷資材는 거의 外貢에 의하여 蒐集되었다.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自作木은 京畿·忠清·黃海·江原諸道, 黃楊木은 忠清·黃海道로 나타나고 있으나 貢納하는 各邑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또 종이(紙)는 下三道 30邑, 松烟墨은 12邑의 貢物이었던 것이 眉巖日記草에 記錄되어 있다. 萬機要覽에는 三南의 草注紙·楮注紙·表紙 이외에 自作板·黃楊木은 江原道の 貢物이라 하였고 다시 六典條例에는 自作板은 一立長 2尺·廣八寸·厚一寸이라 하였다. 自作板은 板木으로서 自作木 즉 染棠이 많이 使用되었을 것이나 또 梨를 上으로하고 梓木이 이에 다음 간다(徐有樂, 林園十六志·怡雲志·圖書藏訪下)고도 있으니 이 自作板은 반드시 一木(한나무)에 限한 말은 아닐 것이다. 中央의 印刷가 특히 뛰어난 것은 校書館의 機構, 資材, 工人의 技術도 우수하였음은 물론 그 중 校正에 특히 마음을 써서 正確을 기한 데 있었다.

校書館은 보통 科場進用冊子를 印出하여 必用時에 對備한 것이나 經筵御用書籍은 물론 때에 응하여 印刷에 從事하였다. 특히 王의 下命에 의한 것 외는 本館提調가 弘文館堂上과 議定하고 혹은 各司의 要請에 의하여, 혹은 本館員의 稟議에 의하여 啓聞하고 印刷書籍을 定하였다. 金安國의 慕齋集卷9, 赴京使臣收買書冊印頒議는 中宗實錄 37年 5月丁亥에 省略收載한 바로 春秋集解·大明律讀法·明律直引等 14種을 들고 있으며 略解를 부쳐 印頒의 必要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印書의 決定은 모두 이와 같은 手續을 밟은 것이 아니라 經筵召對의 사이에 口頭로서 上言하는 일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眉岩日記草에 의하면 柳希春은 宣祖 6年 正月부터 校書館提調를 겸하고 있으나 그 간의 記事는 本館의 書籍印刷가 間斷없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劇務였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보통 한 書冊의 印出이 결정되면 다른 文臣으로서 監考官으로 삼고 本館博士·著作을 監印官으로 하며 正字以下 唱準을 東西班으로 나누어 校正의 正確을 다투게 하였다. 더욱 集賢殿·弘文館員은 印刷에 부치는 原本의 訛字校正을 함은 물론 印刷校正에도 혹은 本館에 齊會하고 혹은 輪番으로서 出仕校正하였다. 大典續錄에 든

校書館書冊印出時 無錯誤則監印官 臨時啓達論賞 唱準人依事緊例 給別仕 每一卷三字以上誤錯 則監印官論罰 唱準人及守藏·均字匠並削仕

의 一條는 成宗朝에 制定된 것이나 從來의 慣行을 法文化한 것으로 생각된다. 校正의 困難은 오늘날 날에도 변함이 없으니 當時 校正의 엄하였음이 생각키워진다.

地方에서의 開板도 中央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地方使營에 命하는가 하면 혹은 管下 數邑에 分刻시킨 事例도 많다. 世宗 9年 慶尙道監司 崔府에게 性理大全 및 易·書·春秋大全을, 全羅道

監司 沈道源에게 詩·春秋大全을, 江原道監司 趙從性에게 四書大全의 刊行을 命한 것(書傳大全附 宣德丁未十二月 卞季良跋) 등은 그 좋은 例이다. 또 各邑守令의 開板은 스스로 良書·稀書, 祖考의 遺稿 등의 廣布를 원하고 혹은 上司知友의 依賴에 응한 例가 많다. 가령 宣德 6年(世宗12年) 錦山刊, 혹은 宋元版의 覆刊이라 생각되는 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70卷 32冊)는 同年5月 全羅都事 金致明의 跋을 부쳐(단 跋은 補寫임)

此書國無刊板 或有家藏者 皆中國書肆來也…庚戌夏藝文館大提學申公榮觀察全羅…公一日語余曰 今諸道未刊者 唯左傳耳 我家有一本 擬將刊印以惠學者何如 余從而贊之 閏十二月 移牒錦山 令他郡鳩材募工 工皆僧之無業者也云云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例는 또 다른 데에도 극히 많다. 이 이외에 寺院·鄉校·書院·祠堂 등의 開版事業도 적지 않다.

政府는 地方의 刊行에도 格別한 注意를 기울여 刊板의 保存保護를 명하였다. 世宗朝初 江原道에서 四書大全을 刊行시켰던 때인 10年 正月 監司의 報告에 의하면 各道諸邑은 특히 冊板의 保全에 힘쓰며 欠에 따라 改刊하고 守令交替時는 解由에 明記할것을 規定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地方의 刊行을 自恣에 맡기지 않고 미리 啓聞해야 할 것을 命하였다. 이는 14年 8月の 일로 그 刊本이 혹은 重複되고 혹은 不緊不要之書 등으로서 헛되히 財力을 浪費하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冊板의 保存은 世祖 4年 3月 이미 校書館에 있어서도 遺失朽敗가 많아 그 官員을 久任으로하여 守藏에 힘쓰게 하고 있기때문에 地方은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12年 11月 梁誠之는 八道郡邑의 冊板書名·枚數·欠有無를 微細하게 報告시키고 그 保管을 解由條件으로 하여 典校署의 監督下에 두는 것을 上書하고 있으며 다시 成宗 2年 正月에도 守令의 典守勳行을 거듭 下命하였다. 이 일은 반드시 遵行되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으나 政府가 地方刊書 및 刊版保全에 格別히 注意를 기울이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뒤 明宗 9年에 나온 攷事撮要是 魚叔權의 私撰이지만 各邑冊板目錄을 收錄하고 있는 것은 中宗末年の 遺書購募 때 各道의 報告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해 본다. 다시 正祖朝間의 徐有槩의 鑊板考와 같은은 王命을 받들어 編修한 것인 만큼 書名, 撰著者, 冊板所藏處, 印紙張數 및 欠의 有無를 明記하여 詳細함을 極한 好著이다.

다음으로 朝鮮版本에서 보는 特色이라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2·3의 所見을 말해 볼까 한다. 첫째 14.5世紀의 整版에 鑄字覆刻本이 많음과 함께 宋·元版의 覆刻도 적지 않다. 鑄字本覆刻은 鑄字印刷가 整版과 같이 一時에 多數의 印刷가 比較的 困難한것, 또 冊板은 오래도록 使用할 수 있는 利點이 있는 것이 그 理由로서 처음부터 計劃의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宋·元版 覆刻이 많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그 당시 上揭 左傳句讀直解와 같이 原本도 많이 存在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版式도 原本에 따랐을 것은 이 또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더러는 四周雙邊도 있으나 대개 四周單邊 혹은 左右雙邊으로 白口 내지는 半黑口보다도 黑

線은 가늘다. 魚尾도 上段에 하나 내지는 上下 다함께 下向의 例가 많다. 이는 그저 世祖頃까지의 刊本으로 成宗朝에 들어오면 그 例는 많지 않다.

둘째는 整版에만 限하는 것이나 黑口 혹은 魚尾에 1·2字의 陰刻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漢字 혹은 諺字로 一定하지 않다. 그 중에는 字形을 이루지 않고 單純한 符號로 생각되는 것도 있다. 혹은 千字文 字號로도 해석되나 그 중에는 刻手名, 地名에서 取하였다고 判定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綴合하면 刊行地를 알 수도 있다. 尊經閣文庫藏, 無刊記本 旌事撮要와 같은 것은 그 一例이다. 이의 紀年은 萬曆 13년에 끝나고 宣祖를 今上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해의 開刊이다. 黑口上段의 刻字를 모아서 南原의 地名을 알 수 있으니 혹시 同地나 그 부근의 全州 등 邑의 刊本일 것으로 推察된다. 또 家藏의 經國大典註解 2冊本은 嘉靖甲寅秋(明宗 9年) 淸州牧開刊의 刊記, 淸洪道觀察使 安瑋以下, 校正·刻手의 地名·人名의 刻記도 있다. 다시 黑口에도 惟·石·白·恩 등의 陰刻이 있다. 刻手·刻名 중에는 惟新記官 石宗元, 淸風正兵 白連宗 등이 보이고 있는데 惟는 惟新, 石은 石宗元의 石, 白은 白連宗의 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種類의 것에는 刊記가 있는 것이 극히 드물다. 얼마 안되는 管見이지만 刊年이 明白한 것의 上限은 柳雲撰 進修楷範 3卷 3冊, 正德己卯(中宗 14年)의 自序가 있는 책이다. 적어도 이런 종류의 書籍은 中宗에서 明宗末, 宣祖 初年에 걸치고 있는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세째는 料紙에 繼貼紙를 使用하는 것으로 整版·鑄字本, 다 같이 볼 수가 있다. 즉 本文用紙가 中間에서 貼繼되어 있는 것이다. 이 貼繼本은 高麗末이나 朝鮮初期의 整版, 가령 覆宋刊本 杜工部草堂詩箋 全56卷 20冊은 곳곳에 縱으로 繼貼紙를 使用하고 있으나 여기에 드는 一群은 모두 橫으로 繼貼한 것들이다. 가장 뛰어난 著例는 足利學校遺跡圖書館所藏 乙亥字本 須溪先生校本 韋蘇集일 것이다. 거의 全紙에 亘하여 풀(糊)이 벗겨져 離開되고 말았다. 이 繼紙本의 刊行年次의 빠른 것은 成宗 22年 직후의 開刊으로 推定되는 甲辰字本 孟浩然集 3卷 1冊(宮城縣立圖書館藏)이다. 繼紙는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며 또 刊記도 없다. 그러나 表紙 위에는 古文記를 貼合하고 表紙에는 8行, 裏表紙에도 8行의 記事가 있어 그 안에 아래와 같은 말을 볼 수가 있다.

鎮於正月十二日爲賊所屠萬戶金孝常箭傷○」○府使羅嗣宗率軍百餘追至賊境爲伏兵所挾擊」○死奇別才到」○○謂節度使虞侯評事萬戶等不謹隄備」成俊爲節度使金繼宗爲虞侯李世卿爲評事」云云
表裏 다 같이 一連의 記事를 이루는 것으로 事件은 成宗 22年 正月 12日 元狹哈一千餘가 造山堡를 包圍하여 萬戶 金孝常·慶興府使 羅嗣宗이 戰死했던 때의 것으로, 아마 이 文記는 朝報나 혹은 그 寫本일 것이다. 따라서 本書의 刊年은 이 해이던지 아니면 直後로 推定된다. 다음 그 下限은 明確하지 않으나 明宗末·宣祖朝 初까지로 이 위의 것은 아직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成宗朝末에서 中宗朝에 걸쳐 종이의 粗惡·不足이 심하였고, 綿布도 역시 같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言及한 바 있다(拙著 李朝貢納制の研究 八節一章 二代役制의 成立). 成宗 22年 12月에는 校書館

도 用紙不足을 告하여 諸家私集, 혹은 子孫의 州邑에서의 開刊도 停止할 것을 命할 정도였다. 燕山君을 거친 中宗朝도 종이의 不足과 粗惡紙가 많이 나돌았던 일은 實錄의 곳곳에 記錄되어 있다. 繼紙本의 出現은 마침 이 現像과 符節을 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宣祖朝 初期에는 古文記의 뒤를 뒤집어서 印刷한 例는 家藏으로 大明律講解가 있어 이미 紹介한 바와 같다. (朝鮮學報49 萬曆十一・二年 慶州京邸告目斷簡について)

VII.

文祿之役(宣祖 25年; 1592, 譯者註: 壬辰倭亂의 日本式 表現)의 豐臣秀吉麾下 日本軍의 侵略은 朝鮮에 多大한 損害를 입혀 그야말로 無法을 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 日本으로 가져온 朝鮮書冊은 日本의 學術, 印刷文化에 重大한 影響을 미쳤다. 특히 活字印刷法의 그것은 在來 開版事業의 一大轉機가 되었다.

活字印刷은 마침 이 때를 前後하여 歐洲에서도 導入되고 있었다. 天正18年(1590 譯者註: 日本年號) 이탈리아의 學僧 아레한드로・바야니아아노는 九州의 大友義鎮・有馬晴信 및 大村純忠등 3侯의 遣歐少年使節의 歸國과 함께 西洋活字印刷機와 工人 數人을 거느리고 來日하였다. 처음에는 島原加津佐의 耶蘇會學校에서 印刷를 開始하고 이어서 天草・長崎로 옮겼다. 로오마字 이외에 漢字・平假名の 金屬活字도 鑄造하고 印本은 대개 宗教書가 많으며 또 宣教師의 語學學習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語學書・辭書・日本의 軍記・物語・文學書 등에도 미치고 있다. 開版年次는 天正19年(1591)에서 慶長 16年(1611)까지로 많이는 日本譯文을 로오마나이즈한 것, 혹은 라틴語의 것, 혹은 日本文의 것 등이며 辭書는 拉丁・葡萄牙・日本語對譯 혹은 日本・葡萄牙辭書등이 있다. 이 중 慶長 15年の 刊本인 こんてむつす・むん地(Contemptvs mundi)에는 唯一한 京都刊行이 있다. 漢字・平假名の 活字는 行書體의 流麗한 筆致를 나타낸 아름다운 文字로 技工도 특히 뛰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豐臣秀吉・德川家康의 연이은 禁敎迫害로 印本도 散佚되어 傳하지 않는 것이 많고 오늘날의 傳存本은 약 30種에 불과하다. 이가 소위 기라시탄版이다.

그러나 기라시탄版은 九州西端의 刊行인 것, 또 곧 禁敎의 迫害를 만난 것 등의 理由로 中央의 印刷文化에 影響한 形迹은 없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筆者는 上記 京都版도 남아 있는 것 등에서 더 한층 調査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공부 부족으로 아무런 發言資格이 없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가장 강한 影響을 미친 主流는 진실로 朝鮮活字 및 版本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活字印刷에 관하여는 일찌기 江戸末期의 書物奉行인 近藤守重(右文故事, 近藤正齋全集)을 비롯 많은 先人의 연구가 있다. 특히 川瀬一馬博士의 「古活字本の研究」는 가장 精微를 다한 大著이다. 여기에 記述하는 바도 이 책에 힘입은 바가 극히 크다.

이 당시의 活字는 木活字는 많고 銅活字는 극히 적다. 그러나 이 새로운 印刷法은 一字印 혹은 一字版이라 稱하여 각 方面에 큰 刺戟을 주었다. 그 가장 빠른 利用은 文祿2年(1592) 11月刊의 後陽成天皇勅版인 古文孝經이었다. 이것이 活字本인 것은 이 때 開版에 參加한 西洞院時慶의 日記로서 明白히 알 수 있지만 木活字인지 銅活字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음에는 京都 本國寺의 僧 日保의 文祿4年 11月刊 天台四教儀集解(3卷4冊), 12月 法華經玄義序(1帖), 5年 10月 醫師 小瀬道喜(號甫菴)의 標題徐狀元補注蒙求(3卷3冊), 慶長元年 12月, 十四經發揮(3卷1冊), 2年 新編醫學正傳(8卷8冊) 東垣先生十書가 있다. 또 이것들은 前後하여 後陽成帝의 命에 의한 慶長2年 7月刊인 錦繡段(1冊) 勸學文(1冊), 4年刊인 日本書紀 神代卷(2卷2冊), 古文孝經(1冊), 四書(5冊) 職原抄(2卷2冊)등이 있다. 이들이 소위 慶長勅版이다. 錦繡段에는 南禪僧 靈三의 刊記가 있는데

錦繡綴者 東阜天隱之所編 而未有刊行 茲悉取載籍 文字鏤一字於一梓 茶布諸一版 印一紙 纔改茶布 則渠祿亦莫不適用 此規模頃出朝鮮 傳達天聽 乃依彼樣 使工摹寫焉

이라고 하여 朝鮮傳來의 活字印刷法에 따랐던것을 明記하고 勸學文에도 거의 같은 刊記가 있다. 또 德川家康도 伏見에서 盛하게 開版을 행하였다. 木字 10萬餘個를 만들어 원래의 足利學校庠主 元佶三要에게 주어 相國寺承兌와 함께 그 事業을 管掌하게 하였다. 慶長4年에서 11년에 이르기까지 그 刊本은 標題句解 孔子家語(6卷4冊), 三略(3卷1冊), 六韜(6卷2冊), 貞觀政要(10卷8冊), 周易(6卷3冊), 東鑑(25冊), 七書(24卷4冊)등이 있다. 이는 伏見版이라 일컬었다. 家康은 다시 12年 駿河로 隱退한 후 잠시 古典籍의 蒐集, 講學에 힘썼으나 晩年의 20年에는 林道春 金地院崇傳에 명하여 大藏一覽集(20冊)을 翌 元和2年 群書治要(50卷25冊)를 刊行하였다. 이에 駿河版의 稱號가 주어지고 있음은 이 때 처음으로 大小 2種의 銅活字가 使用된 特色에도 의한 것일 것이다.

中央에서의 最初의 銅活字 鑄造는 慶長 11年(1606) 6月이었다. 이는 당시 京都 圓光寺에 있던 元佶이 家康의 命을 받아 鑄造하여 後陽成天皇에게 獻上한 大小字 九萬千餘字이다. 이 때 朝廷에서 「高麗銅一字印」 즉 鑄字를 借用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見本・標準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鑄字字本에는 後漢書가 使用되었다. 현재 甲寅字本이 남아 있으나 (10行 17字 內閣文庫藏 末尾에 前進士儒學錄充經史張桑校正繁叟校正이라 있다. 아마 成宗 5年末의 開刊일 것이다. 實錄 5年 11月 癸酉條 參照) 이 때의 것은 中國刊本이었다고 믿어진다. 見本으로 借用한 朝鮮銅活字에 대하여 川瀬博士는 秀吉이 文祿 2年 8月 大阪城 歸還때 獻上한 것이었을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後陽成勅版은 모두 木活字가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獻上銅活字는 극히 小數의 것으로 印版이 可能的 정도가 아니었음을 믿을 수 있다. 또 駿河版銅活字에 대하여 川瀬博士는 혹 앞서의 圓光寺鑄字를 借用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며 그 不足字는 唐人(朝鮮人) 林五官・左兵衛 등이 補鑄하고 있다. 同時에 圓光寺에서 앞서의 鑄造에 使用한 後漢書의 「切殘本」의 送付를 要求하고 있음은 博士의 推定을 뒷받침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圓光寺 銅活字는 朝廷에서는 使用되지 않

고 그 大部分은 駿河版에 使用된 것으로 된다. 이 이외 後水尾天皇勅版 皇朝類苑(99卷15冊)도 川瀬氏는 銅活字라 하고 있으나 字劃에 끊인 곳(切れ目)이 눈에 띄이니 木活字임이 明白하다.

이 이외 慶長・元和年間에는 公卿으로 伏見宮家の 木活字本人 職原抄・豊臣秀頼의 帝鑑圖說이 있고 기타 醫師・各宗寺院 등이 연이어 開板을 開始하였다. 醫師의 開版事業은 如菴宗乾(慶長 4年 元亨釋書 同9年 徒然草)・五十川了菴(慶長 8年 太平記)・延壽院玄朔(曲直瀬正紹)(慶長 4年 延壽院撮要, 12年 難經本義, 13年 藥性能毒, 無刊記局方發揮) 등이 있다. 이들은 다만 刊本廣布의 特志에서 나왔다 하기 보다는 多分히 商業化된 開版이었을 것이다. 이에 誘發되고 또 당시의 經濟的 發達에도 뒷바침되어 일찍부터 出版業書肆가 發生하였다. 京都가 그 中心이었으나 또 地方에도 미치고 있다. 本能寺의 開版도 寺院안에서 그 門前의 營業으로 發展했으며 이 이외 書肆에는 醫德堂守三・梅壽軒(二條通)・一枝軒(西京花園)・中村長兵衛(富小路讃州寺町)・中野市右衛門(四條寺町)・本屋新七(室町近衛通)・下村生藏・吉野意齋・潤轍書院・洛内宗與 등 多數가 있고 地方에는 雲州鹽氏平宣政・紀州和歌山見義堂・若州의 若耶府가 있다.

刊本에는 日本 古來 博士家の 傳承本, 文學書, 五山版本, 혹은 中國刊本을 底本으로 한 것도 있으나 많이는 朝鮮本の 翻印이었다. 原刊記・序・跋을 그대로 傳하는 것에는 標題句解孔子家語・孔子通紀・増廣龍龜手鑑・古今歷代標題註釋 十九史略通考・小學集說・増刊校正王狀元集分類 東坡先生詩・前漢書・歷代君臣圖像・新增鷹鵠方・剪燈新話句解 등이 있다. 또 原刊記・序・跋이 없더라도 木活字가 乙亥字에 酷似한 것 등도 있으나 이것도 역시 底本은 朝鮮刊本이었다고 推定된다. 後漢書・五百註音辯昌黎先生集・孝經大義・棠陰比事 등이 있고 내려 와서는 正保 3年刊 眞文忠公心政二經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端緒(手懸)은 없더라도 醫書를 비롯(三木榮, 朝鮮醫書誌, 朝鮮醫學史 및 疾病史) 朝鮮刊本에 의한 것이 더욱 많이 있었던 것은 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 文祿・慶長期 이전의 日本印刷文化는 어떠하였던가. 이 또한 川瀬博士가 그의 大著「五山版の研究」에 詳細한 研究를 다하고 있다. 멀리 奈良朝以來 印刷는 佛教文化에 支配되어 왔다. 鎌倉時代中期 이후는 특히 京都・鎌倉의 禪宗寺院 및 그 關係者の 活動이 中心이었다. 즉 武家の 保護援助도 두텁고 14世紀後半에는 元末에 당하여 中國人刻工의 渡來도 있고 해서 가장 隆盛을 극하였던 것이다. 그 印本은 처음 經典・禪籍・語錄 등이 많고 차츰 外典에 미쳐서 儒學書・詩文集・辭書類도 刊行되었다. 많이는 宋・元版・明版의 覆刻으로 더러는 立齋先生標題詳註音釋 十八史略과 같이 朝鮮版本의 그것도 있다. 五山이란 北宋以來의 禪寺를 官寺로 하고 五山・十刹・甲刹 등의 寺格을 부여하는 制度를 그대로 받아 들여 京都・鎌倉의 禪寺에 稱號格式을 부여하였다. 그러한 寺院이 中心이었던 것에 由來하여 上記 版本을 總稱하여 五山版이라 하고 있다. 이 名稱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당시의 印刷文化는 禪林 및 그 關係者가 獨占하는 開版事業이었다고 말해 좋을 것이다. 文祿・慶長以後 朝鮮印刷法 및 書籍의 導入은 이 拘束을 解放하고 널리 각 方面의 活動을 促進하여 이 時期로서 前後의 時代를 判然히 截分하였다. 同時에 開

版業者까지도 發生시켜서 차츰 江戸時代의 空前의 印刷文化로 이끌었던 것이다.

더욱 朝鮮本 印刷法의 영향은 活字 뿐만 아니라 裝潢에도 미치고 있는 것도 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朝鮮本이 一般的으로 大型인 것은 本來 中國本の 覆刻이 많았던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裝潢의 綴糸는 紅色 또는 紺色으로서 綴目이 다섯일 것. 表紙는 數枚의 종이를 貼合하여 매우 堅牢하고 겉에는 文樣을 型押한 染紙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文樣에는 龜甲蓮花文·瑞雲草花文·雷文蓮花文·草花胡蝶文·菱花文·瓦當文·圓形忍冬文·龜甲文·鞘型文 등 多樣한데 이것도 어느 程度는 時代的 變遷을 더듬을 수가 있다. 染紙의 더러는 白地の 것도 볼 수 있으나 많이는 褐色·黃褐色의 것을 쓰고 있다. 染料는 桑·柏·槐의 열매(心), 橡子殼·松皮 등이 利用되고 초를 먹여(蠟引) 光澤을 내고 있다(徐有樂 前掲書). 五山版은 朱·紺 혹은 香色 등 一色の 表紙를 使用하고 있으나 慶長以後 寬永(譯者註 日本年號 1624—1643)年間の 刊本에는 이 裝潢法에 따르고 있는 것이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때로 染色은 五山版을 이어 받아 이것에 型押文을 더하는 등 다소의 創意(工夫)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色·文樣·蠟引까지 朝鮮本을 그대로 模倣한 것도 있다. 東洋文庫藏 慶長 14年刊 木活字(魁本大字諸儒箋解) 古文眞寶後集(10卷1冊)은 雷文蓮花文으로 底本은 朝鮮刊本이었다고 推定된다. 그러나 이 模倣은 漢籍이나 朝鮮本の 翻刻의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慶長·元和期の 刊本中에 特殊한 豪華本으로서 嵯峨本이라 일컬어지는 一群의 書冊들이 있다. 本阿彌光悅·角倉了意 등에 의하여 京都의 嵯峨에서 開版됨으로서 이 이름을 얻은 것이다. 古典文學書·舞踊책·謠曲책이다. 帙·表紙·料紙에도 雲母粉을 사용하여 芍藥·薄·楓·鹿·御所車·青海波 등 多樣하고 아름다운 文樣을 그리고 料紙에는 이 이외에 五色의 染紙를 使用하고 혹은 挿畫(挿繪)를 넣는 등 創意(工夫)를 다한 것이다. 文字도 流麗한 筆致의 平假名을 1字 혹은 2,3字를 붙인 木活字를 사용하여 알미울 정도로 調和가 잡힌 大和風의 아름다운 멋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리시탄版에도 流麗한 平假名活字를 사용하고(「ぼうちずもの授けよう」天理圖書館藏), 또 雲母刷의 五七桐花文樣을 打出한 表紙를 가진 것(「ぎやどべかどる」慶長 4年 長崎日本耶蘇會學林刊 同上)도 있다. 이 平假名活字는 한文字이지만 雲母刷文樣의 手法과 嵯峨本이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가 가장 注目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것은 고사하고 嵯峨本の 秩에 雲母刷菱花文, 料紙에 大型草花文을 그리고 있는 것은 확실히 朝鮮本 表紙에 基本을 둔 意匠일 것이다. 다시 東洋文庫藏 慶長13年刊 伊勢物語(慶長戊申, 也是 叟〈中院通勝〉의 刊記가 있다)는 色變料紙에 挿畫(繪)가 든 것으로 表紙는 濃褐色의 초를 먹인 雷文蓮花文이다. 이 책에는 다시 一枚의 表紙를 써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알아 보기 힘들으나 上記 表紙를 보면 朝鮮本이 아닌가의 의심할 정도로서 다만 약간 小型일 뿐이다. 같은 嵯峨本인 徒然草는 龜甲圓形瑞鳥文, 帙은 菱花文이다. 다음에 嵯峨本이 아니지만 元和年間の 開刊으로 생각되는 木活字 大和物語는 黑色 染紙雷文瑞鳥文이며 寬永年間の 刊本으로 생각되는 木活字 丹綠本(朱·綠·黃 三色 을가지고 拂

繪에 彩色한 것) 四生의 歌合도 紺色의 染紙・草花瑞鳥文을 打出하고 있다. 嵯峨本の 意匠은 中國織物의 文樣에서 着想을 얻었다고 하는 說(江島伊兵・表章共編, 光悅謄本 解説)도 있다. 朝鮮本文樣도 오랜 근원을 더듬으면 卷子本 등에 使用한 絹織物의 文樣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上記의 事實이 가리키듯 直接的으로는 본시 朝鮮本表紙를 모방하고 다시 工夫를 加하여 嵯峨本獨自의 意匠으로까지 發展시키고 있는 것이다. (車文燮 譯)

Printing Activities in Yi-dynasty and Their Influence on Japan

by Kôzô Tagawa

This article is written with the aim of giving a clear picture of printing activities in Korea under the Yi-dynasty and their influence on the culture of Japan. Printing activities are, needless to say, related closely with the culture of the country. The author describes in chapters 2, 3 and 4 various institutions that were put into practice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science under the strong civil administration policy that the Yi court retained consistently throughout its prevailing period. The author explains systems of education such as astronomy, medicine, philology, law, mathematics, astrology, calligraphy, composition of official letters in Chinese, and strategics. The national academic institutions named Chip-hyon-jon 集賢殿 (later Hong-mun-koan 弘文館) and Yoi-mun-koan 藝文館 where secular sciences were taught together with Confucianism are also described here. A library was attached to each of these institutions and a number of books were imported from China to enrich their collections with which to facilitate scholars and students.

Chapters 5 and 6 relate about the Kyo-syo-koan 校書館 and Cyu-cha-so (鑄字所 the press and the type foundry). The author shows here a chronological table of types cast by orders of the Royal House and the Government, and mentions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which may well be applied to the chronological identification of undated publications.

Chapter 7 tells about the influence of Korean printing activities upon Japan. Typography of two different provenances was introduced to Japan at almost the same period during the Toyotomi regime. Chinese characters and Hiragana script were cast in type for the first time at Amakusa and Nagasaki under the supervision of Jesuit missionaries, but failed to come into use in the central part of Japan, while the Korean typography brought to Japan by the army of expedition of Hideyoshi had resulted in the liberation of printing activities from the monopoly of what is called the Gozan or Five Temples. Since then, among the literati of the Imperial House, nobility, warriors, medical men and priests, there appeared gradually those who published their works in type-printed form. Accordingly, there appeared also publishers, who paved the way for the flourishing activities of printing in the middle Tokugawa era in Japan.